

I. 개 요

1. 일시 : 2016. 1. 29(금) 15:00~16:00

2. 장소 : KIEP 서울사무소 주민회의실

3. 발표자:

- 김형주 연구위원(LG경제연구원)
- 신승훈 팀장(KOTRA)

4. 제 목

- 한미간 산업/투자 협력 동향 및 시사점

5. 참석자(총 9명)

- 내부참석자(5명): 권기수(미주팀, 연구위원)
윤여준(미주팀, 부연구위원)
김원기(미주팀, 부연구위원)
김종혁(미주팀, 전문연구원)
권혁주(미주팀, 연구원)
- 외부참석자(4명): 김형주 연구위원(LG경제연구원)
신승훈 팀장(KOTRA)
고희채 연구위원(KOTRA)
최윤식 연구위원(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)

II. 주요 발표 내용

김형주 연구위원(LG경제연구원):

한미간 경제협력 방안: 산업협력 대화를 중심으로

□ (한미 정부간 협력 채널 현황) 한미 양국은 2014년 12월 장관회의를 통해 산업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채널의 일환으로 ‘한미 커머셜 다이얼로그(Commercial Dialogue)’를 발족

○ 현재 한미 커머셜 다이얼로그는 무역·투자 촉진, 표준/규제, 에너지, 클러스터 등의 핵심 주제 안에서 세부적인 협력 방안을 추진

○ 미국은 한국 외에도 인도, 브라질, 프랑스, 인도네시아 등과 커머셜 다이얼로그를 통해 다각적인 산업협력 방안을 논의

– 또한, 미국은 산업협력 외에도 경제, 안보, 외교 등을 주제로 하는 대화 채널들을 다양하게 활용하며 양자간 주요 분야 관련 문제점들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해결

□ (산업 협력 강화의 장애 요인) 한국은 미국과의 산업 협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현 상황은 협력 강화에 불리한 상황

○ 한미간 산업협력 채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매 정권때마다 시도되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 이하

– 참여정부 당시 마련됐던 한미 산업협력위원회도 양국의 관심 부족으로 2010년 이후 부진한 상황

○ 이러한 부분은 한미간 산업 구조 상의 차이점에서 찾아볼 수 있음

– 같은 산업에 대해서도 한국과 미국 기업들간의 가치사슬 상에서의 위치가 크게 달라 협력을 모색하는데 어려움 존재

- 미국은 전통적인 제조업들은 아웃소싱 등을 통해 해외로 이전하는 경향이 크고 혁신 산업들을 새로이 미국 내에서 육성하는 반면, 한국은 전통 제조업 위주의 성장을 노리고 있어 양국간 차이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상태

- o 결국 양국간 협력할 수 있는 유망 업종을 발굴하고 이에 따른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

□ (한미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전략) 국가 간 대화 채널의 종류는 다양할 수 있으며 참여국 확대 등 다양한 전략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

- o 과거 한미 경제 관계는 제조업 내에서의 분업구조가 근간을 이룬 반면 이후 미국은 서비스 산업, 한국은 제조업 위주의 성장을 이루며 양국간 산업 간 차이 확대

- 과거 한국은 미국 기업들로부터 선진 지식, 기술 및 경험들을 전달 받았으며 미국 역시 제조업 확장에 한국을 경제 파트너로 확보

- 결국 경제성장의 주요 산업들의 차이가 벌어지며 양국간 산업협력 여건이 보다 어려워짐에 따라 협력 채널들의 실효성에도 문제로 작용

- o 미국의 경우 경제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 국가라도 필요시 협력할 수 있는 외교력을 보유

- 가장 큰 예가 EU와의 관계이며 지적재산권, 기술표준 등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 관련 글로벌 커뮤니티에서의 리더십 실현을 위해 EU와 관련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

신승훈 팀장(KOTRA):

미국의 대한 투자 현황 및 시사점

□ (미국의 대한 투자 현황) 역사적으로 미국의 대한투자는 90년대 말 크

계 증가폭을 보인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감소 추세로 돌아선 이후 2011년을 기점으로 다시 성장하고 있는 상황

- o 외국환투자촉진법 상 투자금액은 신고액 기준으로 기록되며 신고금액은 계획 상의 금액이므로 투자가 다년간 이루어는 경우가 다수 존재
 - 신고액 및 도착액 기준으로 모두 2011년부터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 미국의 대한 FDI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
 - 신고건수 및 도착건수로 비춰보면 2000년대 초중반부터 완만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4, 2015년에는 소폭 상승
 - 결국 건당 투자 규모가 이전대비 크게 확대된 것을 유추해볼 수 있음
 - 대한 투자 중 미국 비중은 2000년대 들어 EU에 뒤처졌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(하지만 2015년 기준 중화권의 대한투자가 미국 투자 규모를 상회)
- o 미국의 대한 투자 중 가장 눈에 띄는 최근 동향은 2014년부터 제조업 투자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 투자가 크게 증가
 - 제조업 투자는 운송기계(자동차, 자동차부품, 항공 등)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학공업 관련 투자도 일정 부분을 차지한 반면 전기전자 관련 투자는 과거 대비 감소
 - 서비스업 투자는 전반적으로 비즈니스서비스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초반 당시 금융보험 부문 투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었던 것은 미국 시티은행의 한미은행 인수로 인한 것임
 - 또한, 비즈니스서비스 중 IT컨설팅 관련 투자 비중이 가장 큰 부분

을 차지하고 있어 한국의 IT산업 발전 현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

- 이와 더불어 한국 서비스 관련 시장의 성숙도가 아직 낮고 발전 단계도 미국 대비 더딘 점을 이용하여 시장 장악을 노리고 서비스업 관련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

III. 주요 토론 내용

□ (중국 진출 교두보) 미국의 중국 진출 활로 상의 교두보 역할을 한국이 수행하며 협력 방안 제시

o 미국 기업들이 중국 진출에 관심은 많으나 아직 중국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사업 환경에 대한 정보가 부족

- 이에 비해 한국은 위치적 우위 및 활발한 중국과의 경제 교류를 통해 중국에 대한 정보 및 경험 보유
- 이를 이용하여 미국 기업의 중국 진출시 한국 기업들과의 사전 교류를 통해 중국 진출 활로를 확보하고 JV 등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중국 진출 가능
- 실제로 미국 기업의 거점형 투자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는 미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여 생산한 상품을 중국에 납품하는 형태를 띄고 있음
- 실제로, 중국의 엔터테인먼트 시장은 한국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경향이 크며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이 연예인 training 및 홍보 등 중국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도움을 준 바 있음

□ (기후변화) 기후변화 관련 국제공조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결국 관련 산업 협력 기회도 많이 존재할 것으로 사료

- 기후변화에 가장 연관성이 높은 에너지 시장의 협력 관계 형성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
 -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발전단가의 경쟁력이 상승하고는 있지만 향후 개발 여지가 많이 남아있어 이와 관련된 공동개발 등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고 사료됨
- 전기차의 경우 가장 눈에 띄는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자동차 업계도 이를 예의주시하며 향후 개발에도 투자를 지속
 - Tesla는 업계의 예상을 깨고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수익 구조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임
 - 전기차의 경우, 자동차 관련 기술은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전 인프라 등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 하에 활성화 가능
 - 전기차 개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다수 자동차업체들이 수소전기연료차 개발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
 - 수소차의 경우, 한국도 경쟁력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고비용으로 인해 상용화 단계에서는 뒤처지고 있음
- (신산업 규제 완화) 미국 신산업 관련 업체들이 한국 진출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나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 존재
 - 한국의 규제가 미국 기업의 신산업 관련 진출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
 - Tesla의 경우 한국 내 공장 설립을 검토한 바 있으나 현재 국내 규정상 전기차 판매가 매우 힘든 것으로 알려져 해당업체의 아시아 진

출시 타 국가에 유치권을 빼앗길 수 있는 가능성 존재

- 이와 더불어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충전 인프라 확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전망

□ (KOTRA의 대한 투자 유치 전략) KOTRA는 미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미국 내 무역관들을 적극 활용

o 미국 내 뉴욕, 시카고, 워싱턴 D.C., 실리콘밸리, 로스앤젤레스, 달라스, 마이애미, 디트로이트 등 8개 무역관 위치

- KOTRA 내 무역전담관이 투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별 주요 산업에 따라 접근 방법을 달리함

- 투자와 관련하여 주기적인 행사 또는 미팅이 따로 예정되어있지는 않으며 사절단 방문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큼

o KOTRA는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협력 관계는 이루어진 바 없으며 주로 주정부의 경제개발국(Economic Development Department)와의 협력이 주를 이루고 있음

□ (한중 FTA 효과) 최근 미국의 대한 투자가 늘어난 점은 한미 FTA보다는 한중 FTA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

o 미국 대한 투자 중 상당 부분을 차지했었던 제조업 투자는 최근 줄어든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기업의 중국 진출을 위한 거점형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

- 이는 중국에 대한 한국 기업의 노하우를 반영하는 반면 'made in Korea' 브랜드가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점을 노리고 한국에서 생산한 상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구조를 띄고 있음

□ (서비스 산업 투자 증가) 미국의 대한 투자 중 서비스 산업 관련 투자

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

○ 과거 미국의 대한 투자 중 상당 부분이 제조업에 치중되어 있었던 반면, 최근에는 서비스 산업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음

- 한국의 제조업 성장이 마지막 단계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힐 수 있으며 서비스 산업 투자 중 IT 관련 서비스 산업이 상당 부분을 차지
- 이와 더불어 한국의 서비스 산업의 성숙하지 않은 점을 노리고 미국이 한국 시장을 사전 점유하려는 부분도 작용

□ (미국 VC의 한국 관심 증가) 미국 VC(Venture Capital)사들의 한국 벤처기업 투자 관심 증가

○ 최근 미국 VC들의 한국 벤처 기업 관련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

- 이는 미국 VC들이 투자 포트폴리오의 다양성 및 확대를 위한 대상으로 한국을 꼽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
- 한국의 기술력이 뛰어난 점을 감안하여 기술 상용화 가능성 등을 미국 VC들이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분석됨

○ 미국의 벤처투자 경우, 세계적으로 민간 주도의 투자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 벤처기업의 경쟁력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이용한 투자 유치 전략도 필요

- 벤처기술 중 신산업과 관련된 기술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미국의 투자금을 통해 간접적으로 협력을 맺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음
- 결국 벤처기업이 성장하여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기업 초기단계에서의 미국투자자와의 관계는 향후 사업 확장시 미국

기업들과의 협력을 이룰 수 있는 네트워크를 사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

- o KOTRA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15년 Foreign Investment Week 행사시 VC들을 초대하여 자리를 마련한 바 있음
- 2016년 중에는 한국 내 벤처기업들을 데리고 미국을 방문해 투자유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할 계획을 구상 중